

국제기구 자원봉사자에서 인턴까지 - 꿈을 꾸는 대로

- 이름 : 김주영
- 근무기구 및 부서 : UNCCD RCU(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Regional Coordinate Unit)
UN 사막방지화 협약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 직위 : 인턴
- 지원 경로 : 산림청(녹색사업단) 해외산림인턴 - 국제협력인턴 선발계획 공고
- 근무 기간 : 2015.8.3. - 2016.1.3.

국제기구를 향한 마음, 언제·어떻게 가졌니?

강원도에서 태어난 시골 뜨내기가 생명현상에 대한 탐구심 하나로 생물학을 공부했다. 학기 중 연구실 생활을 통해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인문·사회·경제·교육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지구환경 레짐 분야로 관심사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기엔 스스로 부족함을 여실히 느꼈던 졸업 이후, 환경관리 전공 석사과정으로 학업을 이어나갔고, 국제기구가 내게 정말 맞는 곳인지 판단하는 이 분야의 교생실습, 즉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근무 중에 있다.

처음으로 국제기구 현장에 발 디딘 곳은 다름 아닌 내가 태어난 강원도다. 평창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2)에 방문객의 등록(Registration)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시작했다. 영어 몇 마디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배정받아 방문자 한 분 한 분의 사진을 찍고 출입증을 발급했다. 나도 언젠가는 참가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주변을 맴 돌았다.

간절했던 그 꿈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 주관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0) 대학(원)생 참관단으로 선정됐다. 회의장 입구에 비치된 등록 부스에서 발급받은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거니 평창 때가 생각나면서 울컥했다.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남미 기후보다 더 뜨거웠던 회의장 내의 열기에 덩달아 취해 더 부푼 꿈을 꾸게 됐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유엔관계자임을 증명하는 파란색 신분증을 목에 걸고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표 개발 회의(Meeting of the IAEG-SDGs)에 사막화 방지협약 보조석에 앉은 내 모습이 회의 영상자료에 남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국제무대에 인턴으로 근무하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던 때 순간이 실제로 이뤄졌고, 그 다음 단계를 또, 기대하게 만든다.

UNCCD는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국제기구니?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지구 정상회담(Earth Summit)이 열렸다. 여기서 세계정상들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환경이슈를 선정을 했는데,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막화 방지가 그 주인공들이다. UN 3대 환경협약이 체결되면서 각각 UN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었는데, 기후변화 협약(UNFCCC)과 사막화방지 협약(UNCCD)은 독일 본(Bonn)에, 생물다양성 협약(UNCBD)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무국(본부)을 두고 있다. 독립 기구답게 개별적으로 직원 및 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유엔 환경계획(UNEP) 말고도 다양한 환경관련 국제기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UNCCD는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해 환경과 개발을 연결시킨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을 지닌 유일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서는 건조·반건조·반습윤 지역 내의 몇몇 취약한 생태계와 그곳의 거주민들 문제를 다루고 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간의 사막방지화 전략(10-Year Strategy)을 채택하여 각 나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근무 중인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소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막화·토지저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 속해 있기에 지식과 기술이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노력’이 UN이 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지역사무소의 인턴생활은 실제로 어때?

독일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국 방콕의 UNCCD 아·태지역사무소는 2명의 소속 직원과 시기별로 1~4명의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여타 다른 국제기구 부서보다는 훈훈한 가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과거 말레이시아에 잠시 머물 당시 헬프대학교(Help Univ.) 캠퍼스에서 몇 개의 유엔기구 지역사무소가 2층짜리 작은 건물에 위치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제기구 지역사무소는 작은 규모로 세계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형태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독특하게 유엔 에스캅(ESCAP, 유엔 사무총장 직속의 아태지역 총괄 조직체)이 운영하는 건물 6층의 한 구역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 바로 맞은편은 UN Human Rights 아태지역사무소이며, ILO, UNEP, UNDP 등 기타 국제기구 지역사무소도 동일 건물 각기 다른 층에 위치해 있다. 덕분에 이곳 근무인원들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국제기구 직원(특히 인턴 간의)과 교류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기구 내 전략 핵심지이며 방방곡곡 파견 나갈 수 있는 본부 근무와 현장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현지 필요(needs)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사로 나설 수 있는 지역사무소, 이들 어느 곳이든 국제기구 인턴으로서 경험을 쌓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본부만 고집할 필요 없고, 필드 업무가 최고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어디를 가든 인턴이 필요하기에 선발을 한 것이고, 자신이 갖은 역량을 주어진 범위 내에 발휘한다면 향후 본부와 현장 모두들 오고 가는 전천후 국제기구 활동가로서의 초석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턴 업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니?

1. 35주년 세계 식량의 날 및 UN FAO 70주년 기념행사

태국은 입헌군주제의 나라다. 어디를 가든 국왕 부부의 사진과 후계자로 거론되는 왕자 그리고 공주의 대형 사진이 전국 곳곳에 걸려있다. 고종 이후 드라마·영화에서 밖에 왕을 볼 수 없는 한국인에게 상징적 의미 이상의 강력한 왕권을 아직도 지닌 왕족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색다른 경험이다.

소위 외교 무대라고 하면 여러 국가의 장관 및 대사가 참석하고 만찬이 따로 준비된 그런 행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35주년 세계 식량의 날 및 UN FAO 70주년 기념행사는 내가 경험한 첫 외교 무대였다. 태국 공주가 주관한 본 행사의 초대장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각국 외교관 및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내빈들과 교류하는 것은 국제공무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행사는 UNCCD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사막화 방지협약 제12차 당사국 총회와 겹치게 되었고 상사 두 분 모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공주 주관 행사에 UNCCD 좌석을 비워둘 수는 없는 법, 결국 인턴인 내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다.

긴장되고 어려운 생애 첫 외교 무대가 시작되었고 스탠딩 만찬까지 줄곧 자리를 지켰다. 발품을 파는 만큼 본인과 조직을 PR 할 수 있는, 부담이 되면서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기회의 장이었다. 내가 곧 UNCCD라는 생각으로 무장하여 마주치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말을 건넨다. 혹시라도 상대와 원활하게 대화가 이어지면 관심사와 업무 얘기까지도 나눈다. 잘 차려진 음식이 입으로 코로 넘어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장했던 순간을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은 한웅큼 손에 쥔 명함이다. 국제기구 꿈나무에게 무급임에도 인턴생활을 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인 진로

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실제 틀 모델을 발견하고 그들과 인맥을 형성하는데 이만한 자리가 없다. 앙카라에서 총회참석 중인 소장님께 ‘값진 기회를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 문구를 결과보고 마지막 한 줄로 채워 넣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귀로만 듣던 외교 무대를 몸소 첫 경험한 이 날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2. 제2차 지속가능 발전 지표 회의(Second meeting of the IAEG-SDGs)

국제기구 인턴 근무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국제회의 참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유엔 소속을 증명하는 파란 색의 신분증만 있다면, (동일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든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페루 리마에서 회의는 수도 없이 참관한 만큼, 실질적인 관계자로서의 참석기회를 아쉬워했다. 실제 생활을 하다보면 정규 직원(P/D-level)과 인턴과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벽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도 가끔 마주한다. 그래도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분명 찾아온다.

2015년 9월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UN 총회에서 채택된 후로, 모든 국제기구는 그다음 단계인 지표(indicator) 개발 및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UNCCD는 SDG 목표(goal) 15번 내의 세부목표(target) 3번 항목 지표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기존 논의 후 제시된 각 지표들을 최종 채택할지 아니면 탈락시키고 다른 대안을 차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였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중요한 2차 회의가 뉴욕 본부가 아닌 태국 방콕 ESCAP에서 개최 일정이 잡힘에 따라 UNCCD 본부 담당자가 아닌 아·태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 평소 조용했던 사무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인턴들은 UNCCD가 제안한 지표에 대해 회원국(member states) 및 타 국제기구가 보내온 코멘트(주로 부정적인)를 정리하고 우리 측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대응방안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한 후로는 더 바빠졌다. 3일간의 짧은 회의 기간에 169(+) 개의 방대한 량의 지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른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이다.

첫째로, 제시된 지표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회원국들 간에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고, 둘째로 시간상의 문제로 지표 당 논의가 5~6분을 넘길 수 없게 규칙이 변경됐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우리는 회원국들 간 본 지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1 사전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존 회의전략을 수정했다. 담당 상사(project officer)의 진두지휘 하에 회의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빈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각 회원국을 접촉하였고, 우리 지표를 지지하는 회원국 수를 확보해나가기 시작했다. UNCCD 사무총장이 직접 독려 메시지를 보내 온 만큼, 주요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담당 과장님을 보좌하며 자료제공 및 부가설명 업무를 맡았고, 동료 인턴(중국 1, 태국 1)들도 각자 영역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갔다. 애초부터 반

대가 많았던 지표였기에 공동의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5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독일 본부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던 이 숨 가빴던 회의 결과는 (비록 마무리 작업이 아직 남았지만) 결국 통과가 되었고, 그제야 안도의 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서두에 언급했던 가족 같은 지역사무소 분위기가 이 회의 후로,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를 피곤케 한 본 회의 때문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유엔 인턴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진감래”, 힘든 시기가 지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가 온다. 현재는 종료 전 제출해야 하는 ‘연구보고서’ 작성에 매진하면서, 간간이 ESCAP 방문객들 대상으로 ‘인턴생활’을 소개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여행을 떠난다. 본인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한국거주자 눈에는 ‘해외여행’인 셈인데, 태국의 문화와 현지사정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쾌하고 배울 것 많은 국제기구 시스템에 오면 값진 휴식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원)생 대상으로 국제기구 인턴십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외교부(코이카), 환경부, 기상청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산림청(녹색사업단) 등 정부기관 운영의 국제기구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선발인원도 상당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꾸준한 관심과 관련 전공지식 및 외국어를 잘 준비한다면 재정 걱정 없이 국제무대에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서두에 국제기구 인턴십은 교생실습이라고 비유했다. 교사로서의 업무능력과 학생들 간의 관계를 시험해보는 마지막 관문인 교생실습과 같이, 국제기구 인턴십도 이곳이 과연 내게 맞는 조직인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괜찮은 기회다. 물론 성공적으로 인턴생활을 마무리하더라도 누구나 유엔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직이수를 한 모든 이가 교사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진로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종·국가를 초월한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위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자신을 인턴십 종료 후에 발견할 수 있는 만큼 도전의 열매는 달콤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국제경험이라는 무형자산은 우리가 향후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한다. “꿈을 품은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끝/



<UNCCD RCU 사무실 현황: 직원 2, 인턴 4-한국 1, 중국 2, 태국 1 -'15.10.8 기준>



<ESCAP 회의장에서>



<ESCAP 건물 앞 - 한국 인턴들과>



<IAEG-SDGs 회의 시 UNCCD 모습 - (右)UNCCD 아·태사무소 김기현 Project officer >



<35주년 세계 식량의 날/UN FAO 70주년 기념행사 - (右) UN WFP 아·태사무소 Deputy>



<국립경상대학교 재학생 ESCAP 방문 - 인턴 업무 소개>